



미 증시, 거래 부진 속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7 일(화) 미국 증시는 연말 폐장을 앞두고 전반적인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연준 긴축 경계 지속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테슬라(-11.4%) 발 악재 등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1%, S&P500 -0.4%, 나스닥 -1.4%). 에너지(+1.1%), 유틸리티(+0.6%), 필수소비재(+0.5%) 등이 강세. 경기소비재(-1.6%), 커뮤니케이션(-1.2%), 기술(-1.0%)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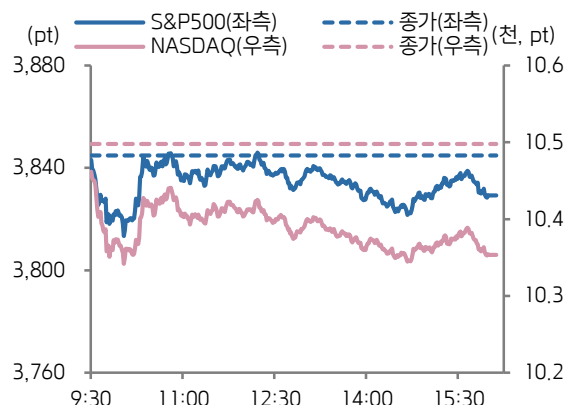
S&P 케이스/실러 10월 20대 대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MoM) -0.5%로 9월(-1.3%) 및 예상치(-1.1%)를 상회. 전년동월대비(YoY)로는 8.6%를 기록하며 9월(10.4%)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예상치(8.2%)를 상회. S&P 측은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집값이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

12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18.8로 전월(-14.4) 및 예상치(-18.8)를 모두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 생산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신규주문, 출하, 기업 전망 등 여타 주요 항목들에서 취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달러스 제조업황의 부진세를 견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 등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석유 공급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석유 수출 금지는 2023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나,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시점은 미정이며, 향후 러시아 정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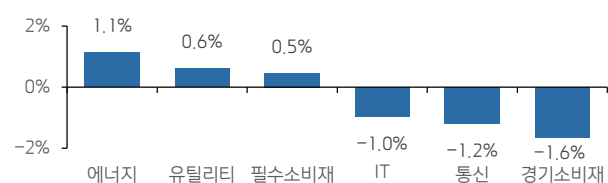
테슬라(-11.4%)는 외신에서 연간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축소를 내년까지 연장기로 한다는 소식에 급락. 이로 인해 루시드(-7.5%), 리비안(-7.3%) 등 여타 전기차 관련주들도 동반 급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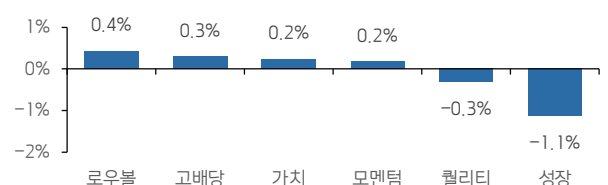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29.25	-0.4%	USD/KRW	1,270.93	-0.3%
NASDAQ	10,353.23	-1.38%	달러 지수	104.19	-0.12%
다우	33,241.56	+0.11%	EUR/USD	1.06	+0.02%
VIX	21.65	+3.74%	USD/CNH	6.97	+0.01%
러셀 2000	1,749.52	-0.65%	USD/JPY	133.40	-0.07%
필라. 반도체	2,490.17	-1.7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530.31	-0.25%	국고채 3년	3.665	-0.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605	-3bp
Eurostoxx50	3,832.89	+0.42%	미국 국채 2년	4.374	+5.3bp
MSCI 전세계 지수	605.97	+0.03%	미국 국채 10년	3.841	+9.4bp
MSCI DM 지수	2,605.48	+0.0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56.48	+0.18%	WTI	79.79	+0.29%
MSCI 한국 ETF	57.65	+1.07%	금	1822.4	+1.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4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71.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중국 리오프닝이 주가 상승 재료로서의 지속 가능성
2. 대주주 요건 회피 목적의 개인 순매도 되돌림 현상 출현 가능성
3. 미국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급락이 국내 2차전지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의 전면적인 리오프닝 소식은 (지난 백지시위 사태 당시와 유사하게) 주요국 증시에서 여행, 레저 등 중국 관련주들에게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 내년도 서방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불가피해진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의 본격 정상화가 글로벌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성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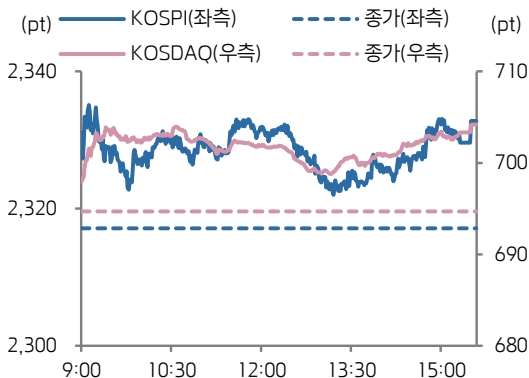
중국을 둘러싼 긍정적인 재료(기대감)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기대감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주가 상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 전일 미국 테슬라 주가 급락(-11.4%)의 배경이 중국 상해 공장의 춘절 연휴 생산 중단 장기화 우려 때문이었으며, 이는 해당 공장 직원들의 감염 확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 엔비디아(-7.1%) 주가 급락이 시사하는 것처럼, 최근 바닥을 친 것으로 보였던 전방 수요 둔화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

또한 전일 미국 시장 급리 급등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인플레이션 변화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수요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로 상승시킬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높아지는 시점. 따라서 추가적인 서방국가 경제 둔화 문제는 자처하더라도, 리오프닝 이후 기대감을 넘어 중국의 실제적인 수요 개선 여부 및 인플레이션 상승 문제를 둘러싼 시장의 민감도는 점증할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개인의 대주주 양도세 요건 회피로 추정되는 대규모 순매도세가 출회됐음에도, 중국 위안화 강세 발원/달러 환율 하락, 기관의 배당차익거래 수요 유입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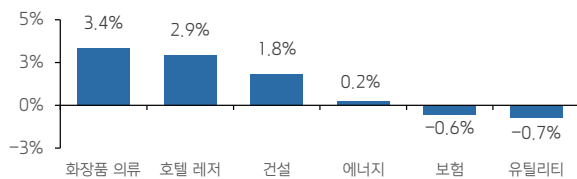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나스닥 급락 충격, 전일 유입됐던 배당 차익거래 물량 출회 등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 장초반 하락 출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금일은 배당락에 따른 기술적인 주가 하락 조정이 있으며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종료에 따른 개인의 순매도 되돌림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실질적인 약세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다만, 전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관련 업종들이 동반 급락세를 연출했던 만큼, 금일 업종 대응 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자심리 약화로 인한 주가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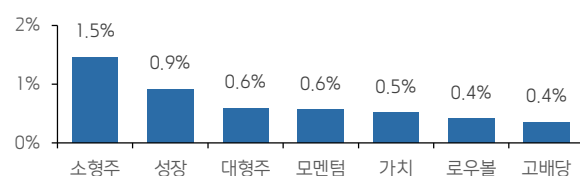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